

나주시 동강면지사협, '공유냉장고 먹거리 나눔터' 운영

지역 농산물 나눔으로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및 공동체 복지 실현

전남 나주시 동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순애·이석형, 이하 동강면지사협)는 2026년도 신규 특화사업으로 '공유냉장고'를 활용한 동강면 먹거리 나눔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자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잉여 농산물과 식재료를 공유냉장고에 비치하고 필요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 중심의 복지사업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먹거리 기부는 관내 로컬푸드 생산자, 소규모 농가, 일반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확 후 남은 농산물이나 잉여 식재료 등을 공유냉장고에 상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선

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가져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동의 제약으로 식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유냉장고의 위생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부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형 민간위원장은 "공유냉장고 먹거리 나눔터는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



나주시 동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도 신규 특화사업으로 '공유냉장고'를 활용한 동강면 먹거리나눔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 지역 주민 간 정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강면지사협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경자청, 2026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3월 20일,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략산업, 서비스산업, 기업지원, 조선해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 물류 및 콜드체인 기업 유치 ▲수소산업 전주지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광양만권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

도록 선제적인 투자유치 전략과 차별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물류 거점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구중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광양만권이 첨단산업과 물류, 친환경 에너지가 융합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제24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노인대학 강의실에서 '제24기 곡성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과 소통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심정섭 지회장과 고영길 학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입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곡성군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양 강좌와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24기에는 총 45명의 어르신이 입학해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생 소개, 노인 강령 낭독, 입학허가 선언, 학생 대표 선서,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어르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 강의실에서 좋은 벗들과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정섭 군 노인회장은 "노인대학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에서



44명의 친구이자 인생의 선생을 만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순천시 저전동, 마음까지 전하는 반찬 나눔 이야기

마중물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순천시 저전동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저전동 만들기 사업'을 지난 1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전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30세대를 매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저전동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찬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물어봐 주고 반찬도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프랑스 최고 요리사들, 장성군 백양사 사찰음식 매력에 '흠뻑'

프랑스마스터셰프협회(MCF), '전남 미식 팸투어' 일정 중 장성 방문

장성군이 '프랑스마스터셰프협회(MCF)' 요리사 200여 명이 최근 '전남 미식 팸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양사 사찰음식을 체험했다고 전했다.

1949년 설립된 'MCF'는 전 세계 600여 명의 프랑스 출신 셰프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번 방문에선 200여 명이 3개 조로 나누어 18일부터 20일까지 장성을 찾았다.

백양사 천진암에 도착한 셰프들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유기농 표고버섯, 마나리, 깻잎, 방울토마토, 딸기, 레몬, 토종생강, 두부 등 식재료는 장성친환경농업협회가 준비했다. 인공조미료 없이 자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과 수행자의 철학을 담은 과정에 깊이 감명받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장 한편에선 장성 친환경 식재료를 알리는 부스가 마련돼 이목을 끌



었다. 셰프들은 청정 환경에서 재배된 친환경 장성 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일 현장을 찾은 김한홍 장성군수는 "세계 미식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마스터 셰프들에게 장성의 아름다

운 자연과 전통 사찰음식, 친환경 식재료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장성 미식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강진군, '2026년 힙(hip) 올드대학' 개강

"배움도 인생도 힙하게" 인생 2막 설계 지원

강진군이 지난 19일 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2026년 힙(Hip)한 올드대학' 개강식을 열고, 수강생 31명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오리엔테이션과 특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드(YOLD)'는 영(Young)과 올드(Old)의 합성어로, 젊고 활동적인 시니어층을 의미한다. 강진군은 변화하는 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춰 단순 여가를 넘어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힙(Hip)한 올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올드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19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어반스케치, 재무설계, 문화체험, 현장학습 등 실용성과 흥미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수강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김씨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올드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즐거움을 얻으며 활기찬 인생 2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힙한 올드대학에 입학하신 31명의 수강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